

핵융합 에너지 알리기 한마당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다양한 전시행사 참여를 통해 학생 및 일반인에 핵융합 에너지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리 기관의 수행사업을 소개하고 성과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자 지난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춘계물리학회의 전시에 참가하고, 앞선 4월 12~13일에는 '사이언스 데이', 5월 5일에는 '행복한 E 페스티벌' 전시 참가를 통하여 어린이와 학생,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마련하여 좀 더 친근하게 핵융합 에너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핵융합 분야의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여름학기 연수 프로그램 시행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플라즈마 과학 및 핵융합 분야의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해외 선진 연구기관 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2009년 해외 여름학기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영국 컬햄(Culham) 연구소 및 독일 막스프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Max-Planck IPP), 벨기에 카를로스 매그너스(Carolus Magnus) 연구소 등 해외 핵융합연구소와의 인력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 국내 핵융합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해외 연구기관에서 약 1~2주 정도 머물며,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플라즈마 물리 및 핵융합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고, 각 연구소의 실험실 및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오픈하우스' 개최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의 '오픈 하우스' 행사가 지난 4월 28일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마련되었다. '오픈 하우스'는 대덕특구 기관장들이 기관장협의회 소속 기관을 찾아가 현황을 살펴보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올해 첫 문을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열게 되었다. 기관장협의회는 먼저 인사를 나눈 후, 핵융합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KSTAR를 둘러보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의 측정과학 분야 협약 체결

국가핵융합연구소는 4월 28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핵융합 파생기술 분야의 첨단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측정 과학 분야의 공동 연구 및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금번 협약을 바탕으로 핵융합 에너지 및 파생기술 분야의 국가 측정 표준과 참조표준의 발전을 위한 상호 연구 협력과 함께 인력 및 정보교류와 연구 시설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핵융합 장치 KSTAR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핵융합 발전소 건설 기술 등 국가적 차원의 핵융합 에너지 기술 관련 지식정보 보호 및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핵융합에너지 참조 표준의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태리 ENEA와의 연구협력 추진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녹색 에너지로 기대되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진도 핵융합 장치 KSTAR의 성능 향상 및 핵융합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하여 이태리 '국립신기술자원환경공사(the Italian National Agency for New Technologies, Energy and the Environment : ENEA)'와 서면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하는 이태리의 국가연구기관인 ENEA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핵융합 장치 '프라스카티(Frascati)'를 활용한 X-선 이미징결정분광기(XCS)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향후 KSTAR에서 활용될 유사 진단 장치를 위한 기술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